CHOSUN UNIVERSITY 1946

조선대학교 CHOSUN U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CHOSUN UNIVERSITY 1946

[UCI]I804:24011-200000236643

2008年 8月
敎育學碩士(日語敎育專攻)學位論文

日本語 條件表現의 用法에 관한 硏究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 專攻

金 宣 廷

CHOSUN
UNIVERSITY
1946

日本語 條件表現의 用法에 관한 硏究

A Study on usage of the Japanese Condition Expression

2008年 8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 專攻

金 宣 廷

CHOSUN UNIVERSITY 1946

日本語 條件表現의 用法에 관한 硏究

指導敎授 朴 靑 國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日語敎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8年 8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 專攻

金 宣 廷

CHOSUN
UNIVERSITY
1946

金宣廷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朴 靑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丁 意 祥 印

2008年 8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CHOSUN UNIVERSITY 1946

目　　次

ABSTRACT.....iii
Ⅰ. 서론 1
Ⅱ. 본론.....2
1.先行研究 2
1−1 조건표현의 분류 4
1−1−1 일반적조건 7
1−1−2 가정조건 8
1−1−3 확정조건.....9
1−2 조건표현의 정의.....9
2.조건표현의「と」「ば」「たら」「なら」의 용법과 기능.....10
2−1「と」의 용법 및 기능.....11
2−2「ば」의 용법 및 기능.....15
2−3「たら」의 용법 및 기능.....19
2−4「なら」의 용법 및 기능.....23
3. 조건표현의「と」「ば」「たら」「なら」의 비교.....29
3−1「と」「ば」.....29
3−2「ば」「たら」.....32
3−3「と」「ば」「たら」.....37
3−4「と」「たら」.....39
3−5「ば」「なら」.....40
3−6「たら」「なら」.....41
Ⅲ. 結論 44
參 考 文 獻.....47

CHOSUN UNIVERSITY 1946

<표 목차>

<표 1> 益岡・田窪의 분류.....4

<표 2> 前田節子의 조건표현 분류방법.....5

<표 3> 松下의 拘束格.....6

<표 4> 阪倉와 松下의 가정・확정표현 분류.....6

CHOSUN UNIVERSITY 1946

ABSTRACT

A Study on usage of the Japanese condition expression

Kim, sun-jeong
Advisor: prof. park, chung-kuk ph.D.
Major in Japanese Education
Department of japanes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 am going to introduce usage and function of the Japanese condition expression such as 「TO」,「BA」,「TARA」, and 「NARA」. We will look into a criterion of definition and type of condition the base of a existing theory. Expression called condition is defined that "The essential premise for happening the certain situation". Condition expression is divided largely with 「general condition」, 「supposition condition」, 「decision condition」.

「general condition」is condition that is when the prior condition come into after that condition come into necessarily.

「supposition condition」 guesses materialization of a certain situation, and it is condition that indicate happening result. It can divide into two parts. They are situation having reality and situation that doesn't have reality.

「decision condition」decides upon facts which already came into the prior condition. As expressing such result, the situation of prior condition is expression that is reason, opportunity, cause of after that condition. Then, we am going to show meaning usage of each condition expression.

First, 「TO」form is including meaning such as 'always', 'necessary', because it has a natural and essential relation the base of practical

CHOSUN UNIVERSITY 1946

experience.

Second,「BA」form has a logic and essential relation the base of the conceptional fact, and it is limited Sentence of ending word of after that condition., because form is judged objectively the prior condition and the after that after the condition. 「BA」form observes prior condition and after that condition in the objective view with logic of the object. Although it is limited Sentence of ending word of after that condition it is degree of limitation.

Third, 「TARA」form has individual, accidental, and occasional relation the base of essential experience of prior and after condition. Although it is equal to 「TO」in opportunity view, because they have accidential meaning's opportunity they are different.

Fourth, 「NARA」form is expression about the expressionists' judgement or attitude, when it assumes true that is the prior certain case.「NARA」form does not assume reality, conclusion of certain facts. It assume judgement about facts, so it is difficult to use habitual facts in the general condition situation.

In conclusion, we search usage and function of the Japanese condition expression such as 「TO」,「BA」,「TARA」, and「NARA」. Because this paper is literature researching I will support for improving this paper in the survey researching.

CHOSUN UNIVERSITY 1946

Ⅰ. 서 론

일본어 조건표현에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으나, 그 중에 현대 일본어 조건표현의 대표적인「と」「ば」「たら」「なら」를 들 수 있다.
일본어 조건표현은 각 형식에 따른 다양성과 유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문법 연구 가운데 있어 예전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각 형식마다 의미 용법이 달라서 어떠한 경우에 어떤 형식이 쓰이는지, 조건형식간의 상호변환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일본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올바른 조건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럼「と」「ば」「たら」「なら」의 예문을 들면,

(1) ここをまっすぐ行くと、右手に郵便局が見えます。
(2) 大雪が降れば、山へ行くのは無理でしょう。
(3) ここは夏になったら、大雨が降ります。
(4) あなたがうなぎを注文するなら、私もそうします。

예문 (1) ~ (4) 는 모두 국어의「~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이지만, 일본어 조건표현「と」「ば」「たら」「なら」를 사용한 문에서는 각기 다른 형식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조건의 기본개념과 기본적인 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건 (주절) 에 나타나는 사태의 성립이 전건 (조건절) 에 나타나는 사태의 성립에 의존하고, 이 때의 전건은 비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조건이란, 전건에서의 비현실 사태가 성립됨에 따라 후건의 비현실의 사태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と」의 기본적인 용법으로는 어떤 사건이나 사항이 성립될 때 반드시 습관적・필연적으로 그 결과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쓰인다.

「ば」의 기본적인 용법으로는 앞의 조건에 따라 뒤에 그러한 결과가 논리적・필연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たら」의 기본적인 용법으로는 「만일~한다면」과 같이 화자의 주관적인 가정성이 강하며, 전・후건 관계가 강한 필연적인 연결이 아닌 개별적이며 우연적이다.

「なら」의 기본적인 용법은 어떤 상황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그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점에 서서 취하는 화자의 판단・의지 등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と」 「ば」 「たら」 「なら」 학자들의 이론에 따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각 조건표현의 사전적인 의미와 조건표현의 세 가지 분류 (일반적조건, 가정조건, 확정조건) 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と」 「ば」 「たら」 「なら」의 분류에 따른 용법과 기능을 고찰해 나가도록 한다.

Ⅱ. 본 론

1. 선행연구

일본어 조건표현에 대해 학자들의 선행연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益岡隆志 (1993) [2]는 일본어 조건절의 형식의 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

---

1)益岡隆志, 『日本語の条件表現』, 「日本語の条件表現について」, くろしお出版, 1993, p.2

2)益岡隆志, 『日本語の条件表現』, 「条件表現と文の概念レベル」, くろし

CHOSUN UNIVERSITY 1946

였다. 구체적으로는「～バ」의 형식이 「～レバ」「～タラ（バ）」「～ナラ（バ）」라는 형식으로 분화해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본 바, 조건절 형식의 분화는 문의 개념레벨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久野暲（1980）은『日本文法研究』에서 구문적 특징과 조건문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と」「たら」「なら」를 분석하였다. 특히「なら」구문의 특징을 모달리티와 텐스의 관점, 화자와 청자와의 관련, 후건의 표현범위에서 나타나는 표현제약의 문제, 전건과 후건의 시간적인 전후성립의 제약 등을 지적하였다.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의 연구자는 각 형식의 특징을 분석하고, 학습자가 각 형식이 갖는 용법과 기능의 차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森田良行[3]는 조건의 성립여부의 관점에서「未了表現」과「過去・完了表現」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先生に会ったら，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未了表現）

（6）昨日デパートへ行ったら，先生に会った。（過去・完了表現）

예문（5）의 경우는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가정하여 표현한 문이고, 예문（6）의 경우는 사태가 이미 일어난 것을 표현하고 있다.

金田一春彦[4] 에 의한 조건표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①前に述べる事柄を仮定して後の事柄に続ける言い方」

「②前に述べる事柄が既に成り立ったものとして後の事柄に続ける言い方」이라고 하였다.

①의 경우를「仮定条件」이라 하고 ②의 경우를「確定条件」이라고 하였다.

お出版，1993

3）森田良行，『基礎日本語２』，角川書店，1982，pp.286～288

4)金田一春彦・池田弥三郎編，『学研国語大辞典』，学習研究社，1981，p.317，p.360

CHOSUN UNIVERSITY 1946

(7) あなたが食べるなら、私も食べる。

(8) それを整理したら、百あまりになった。

有田節子 (1993) 에 의하면「と」는 状況の限定,「ば」는 可能世界の限定,「たら」는 世界の限定, 그리고「なら」는 判断の限定 라고 정의를 내려 그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宮島達夫・仁田義雄는 조건어를「仮定条件文」과「事実的条件文」으로 나누고, 가정조건문을 다시「仮説的条件文」과「反事実的条件文」으로 나누고 있다.

1ー1 조건표현의 분류

益岡・田窪 (1992) 에서는 전건과 후건의 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 분류되고 있는데 조건표현을「二つの事項の間の依存関係を表す」고 정의한다. 의존관계의 성질의 차이에 의해 각 형식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 益岡・田窪의 분류

法則的 依存関係		「ば」
偶有的 依存関係	一般的	「と」
	特定的	「たら」
仮想的事態間の依存関係		「なら」

鈴木忍[5]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전건, 후건을 결합의 관점에서「一般的条件」과「個別的条件」

② 시제의 관점에서「過去、現在、未来 및 超時間的条件」

5) 鈴木忍, 『文法Ⅰ』, 凡人社, 1980, p.210

CHOSUN UNIVERSITY 1946

③ 사태의 既知, 未知의 관점에서 「既定条件」과 「仮定条件」으로 분류하였다.

＜표 2＞ 前田節子의 조건표현 분류방법[6)]

条件表現の分類					レアリティー	
条件的用法	仮定的	一回	反事実	事実的	前件	後件
			仮説		事実	反事実
					反事実	反事実
				事実的	未実現	未実現
	非仮定的	多回	一般（恒久）		事実	未実現
			反復・習慣		(不問)	(不問)
		一回	様々な状況	連続	事実	事実
				きっかけ		
				同時		
				発見		
				時		
				場所		

前田（1991）는 조건표현의 망라적인 분류를 제시했다. 前田는 현실과의 사실관계를 「리얼리티」라고 부르고,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정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가 아닌가」로 하며、「가정적」을 「리얼리티가 未定인 경우（仮説的）와 「사실에 반하는 사태를 그것이 실현한 경우를 想定해 가정하는 경우（反事実的）」로 분류하고 있다.

前田의 분류는 지금까지 반복되어 논의되어져 온 사실성（리얼리티）의 관점, 一回性인가 多回性인가 하는 사건의 시간적 성질의 관점, 그리고 전건이 후건에 대해 어떤 관계가 되고 있는가 하는 관련성의 관점,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종합하여 지금까지도 조건표현 연구의 성과가 잘 반영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건표현의 유형은 仮定条件 / 確定条件 및 順接 / 逆接의 교차분류에 의한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조건표현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松

6）有田節子, 『日本語の条件表現』, 「日本語条件文研究の返還」, くろしお出版, 2000, ｐp.273～274

CHOSUN UNIVERSITY 1946

下（1928）인데 순접을「拘束格」이라 했다.

＜표 3＞ 松下의 拘束格

拘束格	未然仮定	完了、非完了	
	仮定	現然仮定	
	確定	必然仮定	
		偶然仮定	単純
			反予測
			対等

또한 阪倉（1958）는 소위 가정조건 및 확정조건의 표현 중에는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분류는 결국 화자에 있어서 두 가지 사태 사이의 인과성 인정의 강약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松下의 現然仮定에 대하여 그리고 確定拘束格은 仮定拘束格의 연장이고 본래의 용법은 아니다 라는 단정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이것 역시 확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며 恒常確定이라고 했다.

그것에 의해 확정은 필연, 우연, 항상이 되는데 이것은 가정에도 거의 인정된다. 7)

＜표 4＞ 阪倉와 松下의 가정・확정표현 분류

阪倉（1958）		（松下1928との対応）
確定表現	偶然	偶然確定拘束格
	必然	必然確定拘束格
	恒常	現然確定拘束格
仮定表現	偶然	完了性未然仮定拘束格
	必然	
	恒常	非完了性未然仮定拘束格

이상으로 학자들의 조건표현의 분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용어를 중심으로 조건표현의 분류를 크게 일반적 조

7)엄홍경, 『日語学 研究의 展開』, 「일본어의 조건표현」, 박이정, 2000, p.126～128

CHOSUN UNIVERSITY 1946

건, 가정조건, 확정조건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1－2－1 일반적 조건

일반적 조건을 日本語教育辞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ある条件下では、いつもある事柄が起こる。あるいは、ある事をするという意を表す場合、すなわち自然現象、習慣、反復事項、時、場所の区別なく共通する真理（少なくとも話者がそう考えている事柄）などを述べる場合の表現。従って、これは客観性を持った表現であるから、後件には命令・推量・希望というような話者の主観を表す表現が用いられることはない。」[8)]

일반적 조건은 '항상조건'이라고도 불리어지며, 전건이 성립할 때는 반드시 후건도 성립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반복적·습관적인 사항이나 자연현상, 일반적인 진리, 속담 등을 나타내고, 초시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는 국어의 「~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 조건은 객관적인 사태를 나타내므로 후건 문말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たい」 「~よう」 「~てください」 「~たほうがいい」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다.

（9）春になると、桜の花が咲く。
（10）1に2を足すと、3になる。
（11）お酒を飲めば血圧が上昇する。
（12）低気圧が近づくと、天気が悪くなる。
（13）父は私が遅く帰ると、怒る。

8)生田目弥寿、『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1982, p.212

CHOSUN UNIVERSITY 1946

(14) 時間があれば、映画を見たものだ。
(15) 終わり良ければ、すべてよし。
(16) 塵も積もれば山となる。

예문 (9) 는「봄이 되면 벚꽃이 핀다」라는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예문 (10) 은 수학적인 계산을 통한 진리를, 예문 (11) 과 (12) 는 일반적인 진리 예문 (13) 는 개인의 습관 예문 (14) 은 후건 문말에「~たものだ」를 동반하여 쓰인 표현으로 이 때는 회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15) 와 (16) 는 속담을 나타내고 있다.

1-2-2 가정조건

가정조건은 전건의 성립하지 않은 사태를 성립했다는 가정 아래 후건이 일어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때의 전건은 미성립의 사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의 전건을 실현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17) あの坂を上がると、富士山が見えるよ。
(18) 薬を飲めば、熱は下がるだろう。
(19) 仕事が終わったら、電話しますす。
(20) 受付の人に聞いたら、親切に教えてくれるよ。
(21) 時間があれば、本の整理を手伝ってください。
(22) 食べたければ、食べなさい。
(23) 仕事がなければ、休暇がもっと楽しいのに。
(24) もし神様に会えたら、何をお願いしようか。

CHOSUN UNIVERSITY 1946

위의 예문 (17) ~ (22) 에서의 전건은 미성립의 사항을 나타내고 있지만 후건에는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문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23) 은 현실에 반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문을 나타내고 후건의 문말에 「のに」가 쓰임으로서 원망, 유감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예문 (24) 은 실제로도 불가능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1-2-3 확정조건

확정조건은 '기정조건' 이라고도 불리어지며, 어떤 사태의 성립을 이미 확정한 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건은 후건에 대한 계기, 근거, 판단을 나타낸다. 이는 국어의 「~하자」 「~더니」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25) 父が横になったら、すぐに眠ってしまった。
(26) 翌日の結婚式のことを考えたら、なかなか眠れなかった。
(27) その店に行ったら、閉まっていた。

예문 (25) ~ (27) 는 후건에 과거형 「タ」를 취함으로서 말하기 이전에 이미 전건의 상황이 완료됨을 나타내고 있다.

1-2 조건표현의 정의

본 項에서는 조건표현의 정의를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広辞苑』에서는 「ある物事の成立または、生起のもととなる事柄のうち、それの

CHOSUN UNIVERSITY 1946

直接の原ではないが、それを制約するもの」[9)]

『学研国語大辞典』「ある行為をさせるために前提として必要な事柄、また、ある行為に制約を与えるための事柄、また、あることが成り立つために必要な事柄」[10)]

『大辞林』에서는「①物事を決定したり約束したりする時に、前提あるいは制約となる事柄、②物事の成立あるいは実現に必要な事柄」[11)]

益岡隆志는「後件（主節）で表される事態の成立が前件（条件節）で表される事態の成立に依存し、かつ、前件が非現実の事態を表すもの」[12)]라고 정의하였다.

寺村秀夫는「ある非現実の事態の実現が、他のやはり非現実の事態をひきおこす引き金になるということを話し手が述べようとする表現である。」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조건표현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조건표현이란「어떤 사항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제약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2. 조건표현의「と」「ば」「たら」「なら」 의 용법과 기능

9)新村出編, 『広辞苑』, 岩波書店, 1992, p.1179
10)金田一春彦, 『学研国語大辞典』, 学習研究社, 1988, p.929
11) 松村明,『大辞林』,三省堂,1992
12)益岡隆志, 「前掲載」, p.2

CHOSUN UNIVERSITY 1946

2-1「と」의 용법 및 기능

「と」의 의미 용법을 益岡隆志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ト形式の文の基本は、前件と後件で表される二つの事態の一体性を表す点にあると見ることができる。前件で表される事態と後件で表される事態とか継起的に表現するものとしてわかちがたく結びついていることを表す、広義の順接並列の表現の一つ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ト形式が仮定表現の側面を持つのは派生的なものであるに過ぎなくて反事実的仮定条件には全くなじまないのである。そしてト形式の文の中心的用法は、非現実の事態ではなく、現実に観察された事態を表現するものである。具体的には個別的な事態を問題する場合と、反復される事態を一般化して捉える場合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13)]

즉, 益岡隆志는「と」가 비현실의 사태가 아닌 현실로 관찰된 사태를 표현하고, 전・후건의 일체성을 표현하는 점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と」형식은 전・후건 사태 사이에 동시성과 계기성을 나타내고,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반복적이고 항상적으로 성립하는 의존관계를 나타내므로 가정하는 힘이 매우 약하다.
益岡隆志 외의 다른 연구자들의 이론을 좀 더 살펴보자.

有田節子 (1991) 는「と」를「状況の限定」라고 하였다.

山口尭二 (1969) 는「単なる時間的関係から帰結に先行しているにすぎない形式」라고 하였다.

13)益岡隆志, 「前掲載」 p p.14、15

CHOSUN UNIVERSITY 1946

豊田豊子는[14]「と」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連続を表す。
太郎は部屋に入ると、窓をあけた。
② 発見をみちびく。
太郎が家へ帰ると、花子がいた。
③ 後件の行われる時を表す。
夜になると、雪が降った。
④ 後件の行われるきっかけを表す。
窓を開けると、寒い風が入った。
⑤ 因果関係を表す。
北側に窓があると、寒い風が入った。

「と」의 일반조건은 전건의 어떤 사항이 성립되면 항상, 반드시 후건의 사항도 성립되는 것을 나타낸다.
「と」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며, 자연현상, 일반적인 진리 등을 표현하며 초시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게 특징이다.
「と」의 일반조건에는 객관적인 표현을 나타내므로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희망, 의지, 명령, 권유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을 취한다는 것이「と」의 특징이다. 가끔 후건에 과거형을 취한 경우는 과거의 반복과 습관을 나타내므로 예외이다.

(28) この辺は春になると、毎年、桜の花が咲きます。
(29) １０を２で割ると、５になります。
(30) 兄は少しお金が貯まると、海外旅行に出かけます。
(31) 気温が急に下がると霧が発生する。

14)有田節子, 「日本語条件文研究の返還」,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1993, p.274

CHOSUN UNIVERSITY 1946

(32) ウールのセーターは熱いお湯で洗うと縮む。

(33) 子供の頃、休みになると父が海山へ連れていってくれた。

(34) 日曜日に一家で買い物に出ると、必ずデパートの食堂でお昼を食べた。

(35) 学生のころは、試験が始まると胃が痛くなったものだ。

예문 (28) 은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전건이 성립하면 항상, 반드시 후건이 성립하는「と」의 전형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29) 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논리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30) 개인적인 습관을 나타내고 예문 (31) 과 (32) 는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33) 과 (34) 는 후건의 술어가 과거형「タ」를 취함으로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35) 는 후건 문말에 「～たものだ」가 쓰여 이 때는 회상을 나타내는 문이라 할 수 있다.

「と」의 가정조건은 앞의 사항이 성립했다는 가정 아래 뒤의 사항이 일어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36) ここをまっすぐ行くと、右手に大きな建物が見えます。

(37) そこへマッチを捨てると、火事になります。

(38) このボタンを押すとドアが開きます。

(39) これを全部計算すると、総費用はだいたい百万円になります。

(40) 駅から近くて静かだと、家賃はきっと高いですよ。

(41) 午後になると、 散歩しよう。(意志)

散歩しなさい。(命令)

散歩してください。(依頼)

散歩してはいけません。(禁止)

散歩したほうがいい。(忠告)

散歩しましょう。(勧誘)

CHOSUN UNIVERSITY 1946

散歩したい。（希望）

위의 예문 (41) 은 일반조건「と」와 마찬가지로 자연적・필연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오는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희망, 권유, 의지, 명령, 금지, 충고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가 없다.

또, 가정조건「と」의 표현에는 후건에 경고나 협박성의 의미를 포함한 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42）あまりそばへ寄ると、風邪がうつるよ。
（43）真面目に勉強しないと、卒業できないよ。
（44）そんなにたくさん食べると、後でお腹が痛くなるよ。
（45）そうやってテレビを見ていると、宿題ができなくなるよ。

예문 (42) ~ (45) 는 후건에 경고나 협박성을 나타낸 문장으로 이 때는 예외적으로「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후건에는「風邪がうつるよ」、「卒業できないよ」「お腹が痛くなるよ」「宿題ができなくなるよ」와 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と」의 후건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반면에 실질적인 의미로서는「そばへ寄るな」、「真面目に勉強しなさい」「たくさん食べるな」、「テレビを見るのをやめなさい」와 같이 상대에게 명령적으로 지시함으로써 경고의 뜻을 지닌 문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정조건에서 현실을 반대하는 표현 「반사실 가정」이 포함되는데「と」형식은 자연적・필연적인 관계가 강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반사실 가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と」의 확정조건은 앞의 동작이 끝나고 바로 뒤의 동작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낸다. 즉, 「~하자 곧」「그 때」의 뜻을 지닌 동시성과 연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CHOSUN UNIVERSITY 1946

(46) 男は目覚ましい時計を止めると、またベットへ戻った。
(47) 部屋に入ると、帽子をとった。
(48) 国境の長いトンネルを抜けると、雪国であった。
(49) 兄が殴ると、弟は泣き出した。
(50) 父が帰ると、子供たちが飛びついてきた。
(51) 鈴木は手をふくと、ギターを手に取る。

예문 (46) 과 (47) 은 앞의 동작에 이어 곧바로 뒤의 동작이 이어지는 연속을 나타내고 있다. 전・후건이 동일주어이고 의지적 동작일 경우에 연속성을 나타내며, 후건에는 과거형이 쓰인다.
예문 (48) 의 경우는 전건의 성립에 의해 후건의 예상치도 못한 일에 대한 발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49) 과 (50) 는 전건의 성립을 계기로 하여 후건의 사항이 성립되는 경우를 나타낸 문이다.
예문 (51) 과 같이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 쓰인다.

2-2 「ば」의 용법 및 기능

「ば」의 의미 용법을 益岡隆志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ば形式の中心的な用法は、前件と後件の時間の組合せによって時間を超えて成り立つ一般的な因果関係を表すというものである。すなわち、個別的な事態が問題となるのではなく、事態間の一般的な依存関係に対する認識を表すものである。現実に実現する個別的な事態に拘泥しないという点において、非現実の事態を表すと言えるわあけである。」[15)]

15)益岡隆志 (1995) , 「前掲載」 p p.2~3

CHOSUN UNIVERSITY 1946

즉, 益岡隆志는「ば」가 시간을 초월해 사태사이의 일반적 의존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비현실적의 사태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ば」형식은 전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후건이 발생한다고 하는 논리적인 관계를 관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후건의 발생확률이 높다는 것으로「PばQ」는 반드시「PなければQない」라고 하는 대비적 의미구조를 함유한다. 16)
그럼 다른 연구자들의 이론을 좀 더 살펴보자.

有田節子는「ば」를 可能世界の限定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山口尭二는「ば」를 一般条件を表す用法を介して仮定条件を表す形式となり得た。라고 하였다.

鈴木重幸17)에 의하면「ば」형식의 특성으로「과거, 현재, 미래의 일에 상관없이 또한, 기정, 가정에 상관없이 일정의 사태를 조건으로 해서 나타내며 조건과 귀결의 관계가 일회적, 개별적인 경우보다도 반복적, 일회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ば」형식의 일반조건은 앞의「と」형식과 같이 앞의 사항이 성립하면 반드시 후건도 성립된다는 표현을 나타낸다.「と」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ば」는「と」에 비해 관념적 상상에 의해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ば」형식은 시간을 초월해 성립하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표현하며 논리적이며 객관적이다고 할 수 있겠다. 객관성에 따른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자연현상, 반복・습관적 사실, 논리법칙, 속담 등에 많이 쓰인다.

16)田中寛, 「条件表現と基本文型」, 『日本語学』, 8月号, 1994, p.63
17)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態論』, 麥書房, 1975, p.357

CHOSUN UNIVERSITY 1946

（52）春になれば、花が咲きます。
（53）氷が溶けば、水になる。
（54）3に３をかければ、９になる。
（55）祖母は天気がよければ、毎朝近所を散歩します。
（56）甘いものを食べれば、太ります。
（57）のどもと過ぎれば熱さを忘れる。
（58）魚心あれば水心

위의 예문 (52) 은 자연현상을 나타내며 앞의「と」형식과 바꿔 쓸 수 있다. 예문 (53) 는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며 예문 (54) 은 수학적 증명을 통한 논리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55) 는 반복, 습관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56) 는 일반적 사실 (57) 과 (58) 은 속담을 나타내고 있다.

「ば」의 가정조건은「と」보다 논리적 필연성이 약하기 때문에 문말에 커다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희망, 의지, 명령, 추량, 권유를 나타낸다.

단, 전건에 상태성 술어 (「ある」「いる」「형용사」) 가 올 경우에 후건에 화자의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건에 동작성 술어가 올 경우에는 후건에 화자의 희망, 의지, 명령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다.

（59）お金があれば、買おう。（意志）
買いなさい。（命令）
買ってください。（依頼）
買ってはいけません。（禁止）
買ったほうがいい。（忠告）

CHOSUN UNIVERSITY 1946

買いましょう。（勧誘）

買いたい。（希望）

위의 예문은 전건에 상태성 술어「安い」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후건에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의 사용이 가능하다.

（60）8時までに仕事が終われば、来てください。

（61）体操が始まれば、やってみましょう。

（62）お酒を飲めば、歌を歌いなさい。

위의 예문（60）～（62）의 전건「終われば」「始まれば」「飲めば」와 같이 동작성 술어가 쓰인 경우는, 후건의 문말「～てください」「～てましょう」「～なさい」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ば」에는 현실성이 있을 수 있는 사태를 가정하는 경우와 현실에 반하는 반사실을 가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63）これだけ一生懸命やれば、妹も文句は言わないだろう。

（64）台所が便利であれば、料理が楽しみになるでしょう。

예문（63）과（64）는 전건을 가정했을 때 일어난다고 예상되는 결론을 후건에 나타내고 있다. 전건의 일이 언제 행해질지 알 수 없지만, 후건처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65）お金があれば買えるのに。

（66）きちんとした説明があれば、みんな反対しなかったのに。

（67）もっと家を早く出れば、出発の時間に合ったのに。

CHOSUN UNIVERSITY 1946

(68) あと100万円あれば、この鞄が買えるのに。

위의 예문 (65) ~ (68) 은 현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는 「반사실가정」을 나타내는 문이다. 특히 후건 문말에「のに」가 쓰임으로써 현실에 반대되는 사항에 대한 화자의 후회, 유감, 충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확정조건은 전건이 이미 성립되고, 그 조건 아래 후건이 성립된 관계를 나타내며 전건의 사태가 이유, 계기, 근거가 되어 후건을 유도하는 것을 나타낸다.

(69) 会ってみれば、そんなに嫌いなひとではなかったので安心しました。
(70) 話してみれば、けっこう話の分かる人でしたよ。

위의 예문 (69) 와 (70) 은 전건이 후건의 계기, 근거, 이유가 되어, 그 결과를 후건에 나타내고 있다. 위 예문처럼「ば」형식에서 주로 확정조건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표현에는「~みれば」「~思えば」등의 정형화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형식의 의미로「~면」이라 해석하는 것 보다「~해보니」「~더니」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3 「たら」의 용법 및 기능

「たら」의 의미 용법을 森田良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たら」は、事柄が起こってしまった場合を想定して、もしくはすでに生起した状態において、主題の人間や事物に起こった事柄や、その想定に対する話し手の入場．意見を叙述する。従って、後続句に意志．希望．勧誘．,命令．許可などの表現を行うことも許される。また「と」「ば」に比べ、極めて個別的．具体的で、かつ自由・広範囲に用いられる。[18)]

CHOSUN UNIVERSITY 1946

즉, 森田良行는「たら」형식의 표현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용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다른 연구자들의 이론을 좀 더 살펴보자.

山口尭二는「たら」를 完了性の形式より事象そのものに即したの仮定、また実際的である。

益岡隆志는「たら」를 時空間に実現する個別的な事態の表現

鈴木忍는「たら」를 과거완료의 조동사「た」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완료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완료성은 단지 상황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有田節子는「たら」를 世界の限定라고 하였다.

「たら」형식은 과거・완료를 나타내는「た」의 가정형으로, 다른 형식보다 화자의 주관적인 가정이 강한 표현이다.

「たら」는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조건(전건의 사항의 성립여부를 알 수 없을 때)와 확정조건(전건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71) 明日雨が降ったら、試合は中止だ。(仮定条件)
(72) 午後になったら、家を探しに行きましょう。(確定条件)

「たら」는 다른 형식에 비해 문말 제약이 거의 약하기 때문에 후건에 화자

18)森田良行, 『日本語学と日本語教育』, 凡人社, 1990, p.95

CHOSUN UNIVERSITY 1946

의 의지, 희망, 명령, 금지, 권유, 의뢰 등의 표현을 쓸 수가 있다.

(73) お風呂に入ったら、すぐ寝なさい。(命令)
(74) この予防注射をしたら、風呂に入ってはいけません。(禁止)
(75) 宿題が済んだら遊びに行ってもいいよ。(許可)
(76) 会議が終わったら、食事をしに行きましょう。(勧誘)
(77) 武内さんに会ったら、よろしくお伝え下さい。(依頼)

「たら」 형식은 후건의 사태발생에 무게를 두어, 미래의 예측 불가한 발생과 현재 상황을 다시 서술한 표현방식을 뜻한다.
「たら」 의 전건의 사태가 완료된 후에 후건이 발생하는 시간적인 순서와도 관계가 있다.

(78) 太郎が来たら、私は帰る。
(79) うなぎを食べたら、元気が出る。

예문 (78) 의 전건 「그가 돌아오면」 이 먼저 성립된 후, 후건 「그 후에 나는 돌아가겠다」 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 예문 (79) 도 마찬가지로 전건 「장어를 먹으면」 의 사항이 먼저 성립된 후에 후건 「힘이 난다」 이 성립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たら」 의 가정조건에는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 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을 가정할 때 사용된다.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
(80) もし私が女だったら、私のような男とは婚約しない。

CHOSUN UNIVERSITY 1946

(81) もしも神様に会えたら、何をお願いしようか。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82) もしこの船が落ちたら、どうしよう。

(83) 地震が起きたら、まず火の始末

위의 예문 (80) 과 (81) 은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자유롭게 가정하고 있는 반면에, 예문 (82) 와 (83) 의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문이다.

「たら」의 확정조건은 전건의 사항이 성립된 가정 아래 후건 사항이 성립을 나타낸다.

(84) 薬を飲んだら、熱が下がった。

(85) 父の日に贈り物したら、父はとても喜んだ。

(86) コンサート前売り券を買いに行ったら、売り切れだった。

(87) お風呂に入ったら、電話かかってきた。

(88) 会社を辞めたら、ストレスがなくなって元気になった。

위의 예문은 전건이 성립됨에 따라 후건의 사항을 알게 되는 발견, 계기, 의외, 근거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전건이 후건보다 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9) 歩いていたら、急に雨が降ってきた。

(90) 十五分ほど待ったら、バスが来ました。

(91) 向うに着いたら、電話をします。

CHOSUN UNIVERSITY 1946

예문 (89) ~ (91) 은 전건의 동작이 끝나고 나서 후건의 동작이 연이어 시작되는 것으로 「그때」「그다음에」해당하는 뜻을 나타낸다.

2-4 「なら」의 용법 및 기능

「なら」의 의미 용법을 益岡隆志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ナラ形式の文の特徴は、前件である事態が真であることを仮定し、それに基づいて後件で表現者の判断・態度を表明するという点にある。このことは、ナラ形式の文においては、ば形式の文、たら形式の文に比べて、前件と後件の間の結びつきが弱い一言に換えれば,前件と後件が相互にかなり独立的であ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ナラ形式で前件の役割は、後件で判断や態度を表現するための基盤となる事項を提示する。後件において表現者自身の判断や態度が示されて表現重点が後件にあるとことである。」[19)]

즉, 益岡隆志는 전건에서 어떤 사태가 진실인 것을 가정하여, 거기에 근거해 후건에서 표현자의 판단・태도를 표명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 전・후건의 관계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후건이 전건보다 선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다른 연구자의 이론은 어떤지 살펴보자.

森田良行 (1983) 는「なら」의 성립 조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

19)益岡隆志, 「日本語の条件表現について」, 『日本語の条件表現』, 1995, くろしお出版, pp.12.14
20)森田良行, 『日本語の表現』, 創林社, 1983, p.87

CHOSUN UNIVERSITY 1946

① 전・후건의 사태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정보 또는 화자의 意思 이전에 규정되어 있는 事象
② 후건에 나타난 사태는 전건에서 서술한 사태의 현실이전에 성립하든지 혹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③ 더군다나 후건에는 화자의 의사에 의한 판단이 나타나야 한다.
즉, ①은 어느 사태가 자기 자신의 판단이 아니고 전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②는 후건이 전건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 후건이 결의, 의지, 요구, 명령을 나타낼 때에는 이 규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은 후건이 화자의 의견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久野暲의 의견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有田節子는「なら」를 判断の限定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山口尭二는「なら」를 判断性の形式、より判断に即した仮定形式で、思考的である。

「なら」는 어떠한 상황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그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점에 서서 화자의 판단・의지・입장・의견 등을 나타낸다.

(92) あなたがそんなに反対するなら、諦めます。
(93) 今なら家にいるかも知れない。
(94) 寿司が嫌いなら、食べなくてもいいですよ。

또한「なら」는 명사에 접속되어 화제제시를 나타낸다.

(95) ビールを飲むなら、ビアガーデンに限る。

CHOSUN UNIVERSITY 1946

(96) 京都で花見をするなら、円山公園が最高です。

「なら」의 가정조건은 어떠한 사태에 대한 판단을 가정하여, 그것이 실현되기 이전의 시점에 서서 화자가 취해야 할 입장, 행동, 의지, 요구 등을 나타낸다. 21)

(97) あなたが出ないなら、応援に行くのはやめにするわ。
(98) 景気が回復するなら、物価は高くなるだろう。
(99) 写真を撮るなら、カメラを貸してあげよう。
(100) そんなに頭が痛いなら、早く帰ったほうがいいですよ。
(101) もし郵便局へ行くなら、ついでに切手を買ってきてください。

「なら」는 후건이 전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たら」와는 전혀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102) 写真を撮るなら、カメラを貸してあげます。
(103) 明日試験があるなら、今晩勉強しなさい。
(104) うなぎを食べるなら、家で作ってあげます。

예문 (102) 에서 후건「카메라를 빌려주겠다」이 전건「사진을 찍는다」보다 시간적으로 선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103) 과 (104) 도 마찬가지로 후건이 전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표현된다.
또「なら」형식은 현실에 반하는 사태를 가정하는 「반사실가정」을 나타낸

21)鄭晳仁, 「日本語の条件表現に関する考察」, 京畿大学校教育大学院, p.28

CHOSUN UNIVERSITY 1946

다.
앞의「ば」와「たら」형식은 전건, 후건 모두의 현실에 반하는 반사실가정 용법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なら」형식은 전건이 사실인 경우를 나타내고 후건이 사실에 반하는 것을 나타낸다.

(105) 結婚式に出席するなら、黒いスーツを買うのだが。
(106) 神戸に来ていたのなら、電話してくれればよかったのに。

위의 예문은 後件이 前件보다 앞선다는 시간관계를 나타내고 문을 표현하고 있다. 예문 (105) 은 실제로는「결혼식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 양복은 사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전・후건 모두 사실에 반하는 사항을 나타낸다. 예문 (106) 는 상대가 고베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건「그렇다면 전화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상대가 전화하지 않은 것을 비난, 후회의 기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건은 사실을 표현, 후건은 사실에 반하는 반사실가정을 표현하고 있다.

(107) 仕事が終わったなら早く帰りなさい。
(108) 困ることがあったならいつでも相談に来い。
(109) もう少し発見が早かったなら助かったのに。

「なら」형식은 전건의 사태가 발생하여 실현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것이 실현되기 이전의 시점에 서서 화자가 취해야 할 입장을 나타내는「仮定条件表現」과 전건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건에 화자가 취해야 할 입장, 판단, 의견 등을 표현하는「確定条件表現」으로 구분되어진다.

이상으로「と」「ば」「たら」「なら」의 용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CHOSUN UNIVERSITY 1946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다.

「と」의 一般的条件은 전건이 성립되면 그 결과가 자연적・필연적인 관계로 객관적인 서술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110) お酒を飲むと、顔が赤くなる。
　　2に2をかけると、4になる。

「と」의 가정조건은 미성립의 사태를 성립했다는 가정 하에 일어나는 결과를 나타낸다.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적 표현이 올 수 없다.

(111) 雨だと試合が延期になると思うよ。
　　そのボタンを押すと、ドアが閉めます。

「と」의 확정조건은 전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연속해서 후건이 일어나는 표현이다. 따라서 후건이 전건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후건의 시제가 과거형 「タ」형을 취한다.

(112) 田中さんが部屋に入ると窓を開けた。
　　部屋に入ると、靴下を脱いだ。

「ば」의 일반적 조건은 논리적이며 관념적인 상상에 의한 경우가 많다. 자연현상이나 속담, 진리 반복・습관적사실 등에 쓰임.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113) 春になれば、花が咲く。
　　魚心あれば水心。

「ば」의 가정조건은 논리적인 필연성을 가지므로 가정하는 힘이 약하다.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표현을 즉 전건이 상태성 술어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CHOSUN UNIVERSITY 1946

(114) お金がなければ、働きなさい。
安ければ、買ってください。

「ば」의 확정조건은 전건은 이미 확정적으로 실현된 사항이 이유・계기가 되어 서술하고 그것에 동반하는 상황의 결과를 후건에 서술한다.

(115) よく見れば、老人ではなかった。
そう思えばそんな気もする。

「たら」의 일반적 조건은 개별적, 일회적 성향이 일반적, 반복적 성향이 강한 일반조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なら」는 일반적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たら」의 가정조건은 다른 형식에 비해 문말표현에 제약이 없다. 또한 반사실가정을 나타낸다.

(116) 天気が良かったら、山に行きましょう。
薬を飲んだら、熱が下がったのに。

「たら」의 확정조건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전건이 후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117) トンネルを出たら、雪がひどく積もっていた。
玄関に入ったら、父が倒れていた。

「なら」의 가정조건은 후건이 전건보다 선행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낸다. 후건에 화자의 판단, 의지, 명령, 권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18) 足が回復するなら、サッカーができるだろう。
写真を撮るなら、カメラを貸してあげるよ。

CHOSUN UNIVERSITY 1946

「なら」의 확정조건은 전건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자가 취해야 할 입장, 판단, 의견 등을 후건에서 서술한다.

(119) 仕事が終わったなら、早く帰りなさい。
　　困ることがあったなら、いつでも相談に来い。

3. 조건표현「と」「ば」「たら」「なら」의 비교

3－1 「と」「ば」

「と」와「ば」는 전건의 사항이 성립되면 '항상, 반드시' 후건의 사항이 성립된다고 하는 자연・필연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주로 자연현상, 반복적, 습관적인 사항, 일반적인 진리나 속담 등의 관계에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120) a. 春になると、桜の花が咲きます。
　　b. 春になれば、桜の花が咲きます。
(121) a. 1に2を足すと、3になる。
　　b. 1に2を足せば、3になる。
(122) a. 酒を飲むと、顔が赤くなる。
　　b. 酒を飲めば、顔が赤くなる。
(123) a. 来年のことを言うと鬼が笑う。
　　b. 住めば都。

위의 예문 (120)의 (a)와 (b)는 「봄이 되면 꽃이 핀다」라는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예문 (121) (a)와 (b)에서는 수학의 논리적인 계산를 나타내고 있고 예문 (122) (a)와 (b)는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123) 과 같이「と」와「ば」는 속담을 나타낸다.
위의 예문들은「と」와「ば」로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CHOSUN UNIVERSITY 1946

(124) ウールのセータは熱いお湯で洗うと縮む。
(125) 2に2をかければ、4になる。

예문 (124) 에서의「と」는 전・후건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라는 일반적인 사실법칙이 강한 표현에 쓰이고, 화학이나 물리 등을 나타낼 때 쓰이지만 예문 (125) 에서의「ば」는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수학과 논리학 등에 많이 쓰인다.
이에 松下大三郎는「と」형식은 실제적이고, 「ば」형식은 이론적이라고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2)

(126) 私はお酒を飲むと、眠くなる。
(127) 誰でも酒を飲めば、酔う。

예문 (126) 에서는 전건 「술을 마신다」와 후건「잠이 온다」는 관계는 실제적인 사태를 나타내고, 예문 (127) 는 전건「술을 마신다」와 후건「취한다」라는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론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と」형식은 전・후건의 관계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부사「よく、必ず、たまに、いつも」가 함께 쓰이고 후건에는 객관적인 사태가 서술되어진다. 따라서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의지, 희망, 명령, 금지 등과 같은 표현이 올 수 없게 된다.
그러나「ば」형식은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인과관계성이 강하여 '그렇지 않으면 ~된다' 라는 뜻을 지닌 이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28) 宿題をしてくれれば、お小遣いをあげます。

22) 松下大三郎, 『標準日本語口語法』, くろしお出版, p.290

CHOSUN UNIVERSITY 1946

예문 (128) 에서는 '숙제를 해주면 용돈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이면적인 의미를 포함한 문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と」와「ば」형식은 속담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129) 夜瓜を切ると、親の死に会えない。
(130) 窮すれば通ず。
(131) 薬も過ぎれば毒となる。
(132) 噂をすれば影がさす。
(133) 犬も歩けば、棒にあたる。

예문 (129) 과 같이「と」를 사용한 속담에서는 전・후건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건의 사항의 행동을 금지해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예문 (130) ~ (133) 은「ば」를 사용한 속담을 나타낸 문으로 전・후건사태간의 연관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은「ば」형식에 많이 쓰인다.
「と」형식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전・후건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서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때문에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희망, 의지, 명령, 금지, 의뢰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134) 桜が咲くと花見に行ってもいいです。
(135) 雨が降ると出かけてはいけません。
(136) 食事ができると呼んでください。
(137) 台風が来ると、帰りなさい。

위의 예문 (134) ~ (137) 는 후건에「~てもいい」「~てはいけない」「~てください」「~なさい」와 같은 표현이 쓰여서 이는 전부 非文이 된다.
또한「と」형식에는 후건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여 경고나 협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CHOSUN UNIVERSITY 1946

(138) あまりそばへ寄ると、風邪がうつるよ。
(139) そんなにたくさん食べると、後でお腹が痛くなるよ。

위의 예문 (138) 와 (139) 은 후건 「風邪がうつるよ」、「お腹が痛くなるよ」와 같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여 경고나 협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と」형식의 예외적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의 실질적인 의미로는「そばへ寄るな」、「たくさん食べるな」와 같이 명령적으로 상대에게 경고나 협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と」형식은 전건과 후건의 실제적이고 필연성이 강한 관계로 후건에는 객관적인 서술, 즉 후건에 화자의 의지, 희망, 명령, 권유, 금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ば」의 경우는 후건에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의지, 명령, 권유, 금지, 희망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자.

(140) 浴衣が安ければ、買うつもりです。
(141) 冷たいビールがあれば飲みたいです。
(142) 飲みたくなければ、無理して飲まなくてもいい。
(143) 週末、天気がよければ、ハイキングに行こうよ。

예문 (140) ~ (143) 의 경우 후건에「~つもりだ」「~たい」「~てもいい」「~よう」 표현된 문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ば」형식의 전건에는 상태성 술어 (ある/いる, 형용사, 상태동사)「安い」「ある」「ない」「よい」가 쓰임으로서,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의지, 희망, 권유, 의뢰, 금지, 명령 등의 표현이 사용할 수 있다.

3－2 「ば」「たら」

CHOSUN UNIVERSITY 1946

「ば」와「たら」는 조건표현 형식 중에서 가장 유사하고 이들은 서로 서로 바꿔 사용해도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
「ば」와「たら」는 가정조건을 나타내는 조건형식으로서「たら」는 「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완료성을 가지고 있어 동작이 완료하는 것을 상정해 확인하는 용법을 지니고 있다. 「ば」「たら」는 현실에 반대되는 반사실적 가정도 나타낸다.
「ば」형식은 항상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관념적인 상상에 의한 경우가 많다. 조건・결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후건에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현상, 일반적 진리, 습관, 격언, 속담을 표현할 수 있다. 「たら」는 특정적, 일회적인 의존관계를 나타내고 있고「たら」는 문말제한이 거의 없어 후건에는 화자의 희망, 의지, 권유, 충고, 금지, 의뢰 등의 표현이 쓰일 수 있다.

(144) 春になれば、もう少し暖かくなるだろう。
(145) この薬を飲みさえすれば、気分がよくなるはずです。
(146) 成績が優秀でさえあれば、どんな職業にもつくことができる。
(147) 受付の人に聞いたら、親切に教えてくれるよ。
(148) 冷凍食品は袋を開けたら、残してはだめです。
(149) 備えあれば、憂いなし。

예문 (144) 은「ば」가 쓰여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145) 와 (146)「ば」의 경우는「さえ」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最低条件을 나타내고 있고「たら」보다 가정성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을 보여주고 있다. 예문 (147) 는 전건의 미성립 상태를 성립했다고 가정표현을 나타내는 문이고, 예문 (148) 는 「たら」가 쓰여 화자의 주관적인 표현 「금지」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149) 은 속담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ば」의 경우는「さえ」를 같이 사용함으로써「たら」보다 가정성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을 보여주고 있다.
「たら」는 「もしも」、「万一」、「もし」등의 진술에 호응하는 부사가 함

CHOSUN UNIVERSITY 1946

께 쓰이는 일이 「ば」 형식보다 많다.

(150) もし、あまり高かったら誰も買わないでしょう。
(151) 万一雨が降ったら試合は中止です。

「と」와 「たら」는 현실에 반하는 「反事実仮定」을 나타낸다.

(152) 落ち着いていれば、財布を忘れることはなかっただろう。
(153) もっと注意していたら、こんなひどい事故は起こさなかったのに。

「ば」 형식의 경우는 전・후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희망, 의지, 명령, 금지, 의뢰 등의 표현이 올 수 없다.
다만, 「ば」의 전건에 상태성 술어 (ある、いる、형용사) 이 올 경우에는 후건에 화자의 희망, 의지, 명령, 금지, 의뢰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154) 気分が悪ければ、今日は休んでもいいです。
(155) 値段がこんなに安ければ、全部売れると思います。
(156) よろしければ、もう一杯いかがですか。
(157) 時間があれば、勉強しなさい。

川口さち子[23]씨는 「ば」 형식과 「たら」 형식의 상호변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가. [전건－たら] [후건－과거]

(158) 15分ほど待ったら、バスが来ました。

23)川口さち子、『と、ば、たら、ならによる条件表現の分析』、早稲田大学校教育研究所、ｐｐ.74～85

CHOSUN UNIVERSITY 1946

(159) 教室に行ったら、誰もいなかった。
(160) お見舞いに行ったら、金さんは意外に元気だった。

위의 예문「たら」형식은 개별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습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ば」형식으로는 바꿔 쓸 수 없다.

나. [전건－たら] [후건－현재]

(161) 安かったら、買います。
　　安ければ、買います。

(162) 食べたかったら、好きなだけ食べてください。
　　食べたければ、好きなだけ食べてください。

(163) 寒かったら、ストーブをつけます。
　　寒ければ、ストーブをつけます。

「たら」형식에서「ば」의 형식의 전환여부에 대한 경우로서「たら」의 전건 술어가 상태성 술어 (「安い」,「食べたい」) 일 때, 후건에는 어떠한 문말의 술어가 오더라도「ば」의 형식으로 변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과 같이 전건에 동작성 술어가 오는 경우 전건이나 후건 중에 어느 하나가「意志」또는「状態」일 경우에「たら」형식이「ば」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164) 薬を飲んだら、治ります。
　　薬を飲めば、治ります。

(165) レンズをつけたら、よく見えます。

CHOSUN UNIVERSITY 1946

レンズをつければ、よく見えます。

(166) 仕事が終わったら、帰ります。
仕事が終われば、帰ります。

(167) 何時ごろでしたら、お帰りでしょうか。
(168) どのぐらい勉強したら、日本語の新聞を読めるようになりますか。
(169) 結婚したら、仕事はやめるの。
(170) 万一雨が降ったら、どうしましょうか。

위의 예문은 전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 수단을 묻는 의문문의 문으로 이 때는「たら」를「ば」로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나, 예문 (169) 과 (170) 같이 전건이 성립한 경우에 후건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묻는 의문문에서는 일반적으로「たら」가 쓰인다. 이 때「ば」를 사용하게 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ば」형식과「たら」형식을 다시 정리해 보자.
「ば」형식은 시간을 초월해 항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학이나 논리학 등에 많이 쓰인다. 「たら」형식을 쓰게 되면 전건과 후건의 관계가 논리성이 약하므로 화자가 그 상황을 바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구어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たら」형식은 「ば」형식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고 자유스러운 문을 표현할 수가 있으며 회화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ば」와「たら」의 형식은 미성립의 사태와 현실의 사태에 반대되는 반사실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ば」형식은 전건에 동작술어를 나타낼 경우에는 후건에 화자의 의지, 명령, 금지, 희망, 허가 등의 표현이 올 수 없고,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는 문이 성립되지 못한다.
따라서「ば」와「たら」형식의 변환 가능성은「ば」가 쓰인 문의 전건이 상

CHOSUN UNIVERSITY 1946

태성 동사 (형용사, ある / いる 등) 인 경우와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3－3 「と」「ば」「たら」

「と」와「ば」형식은 일반적인 사실과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므로 자연현상, 습관, 일반적인 진리, 속담 등의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다.
「たら」형식의 경우는「と」「ば」형식에 비하여 가정성이 강해서 구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71) 氷が溶けると、水になる。
　　氷が溶ければ、水になる。
　　氷が溶けたら、水になる。

예문 (171) 에서처럼 전건「얼음이 녹으면」과 후건「물이 된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と、ば、たら」형식이 쓰일 수 있다.

(172) 春になると、桜の花が咲く。
　　春になれば、桜の花が咲く。
　　春になったら、桜の花が咲く。

예문 (172)은 '봄이 되면 꽃이 핀다'는 모두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と、ば、たら」형식이 쓰일 수 있다.

(173) 熱が上がると、病院へ行きます。
(174) 冬が来れば、寒くなる。
(175) 大学を卒業したら、半導体の会社へ就職するんです。
(176) 料理を食べたら、歯磨きをします。

CHOSUN UNIVERSITY 1946

예문 (173)과 (174) 는 전건「熱があがると」「冬が来れば」의 동작이 일어날 때 항상, 반드시 후건「病院へ行きます」「寒くなる」의 동작이 일어난다고 하는 습관적・반복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문이다.
예문 (175) 와 (176) 은 전건의 동작이 행해진 후에 바로 후건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표현으로 전건「大学を卒業したら」「料理を食べたら」가 먼저 행해진 다음 후건「就職するんです」「歯磨きをします」의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시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문이다.

(177) 先生が来ると
来れば　出発しましょう。
来たら

(178) 韓国へ行くと
行けば　キムチを買ってきてください。
行ったら

위의 예문 (177) 에서의 후건「出発しましょう」가 쓰인 경우 전건「来ると」「来れば」「来たら」가 모두 사용할 수는 없는 경우이다.
「と」의 경우는 전건의 사태가 일어나면 반드시 후건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자연・필연적인 관계가 강하므로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때「来ると」는 사용하기가 어렵다.「ば」는 전건 술어가 상태성이 올 때 후건에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이 가능하나, 여기서는「来る」라는 동작 술어가 쓰였으므로 사용가능이 어렵다.
반면「たら」는 문말에 제약이 적고 사용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예문 (178) 에서도 마찬가지로 후건「キムチを買ってきてください」와 같은 의뢰표현을 나타내는 문에서는「と」는 전・후건의 객관적인 서술을 나타내기 때문에 후건에 화자의 주관적 표현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사용가능이

CHOSUN UNIVERSITY 1946

어렵고, 「ば」는 전건에 동작술어「行く」가 왔기 때문에 후건에는 화자 주관을 나타내기 어렵다. 「たら」는 다른 형식에 비해 문말제약이 적어 화자의 주관을 나타낼 수 있다.

이상으로「と」「ば」「たら」형식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자.
「と」와「ば」형식은 전건과 후건이 항상적인 사실과 논리적인 인과관계, 자연현상, 습관・반복적인 사실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たら」의 경우는 개별적 일회적이기 때문에 구어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
「たら」는 다른 조건형식에 비해 가정성이 강하고 문말제약이 적기 때문에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적 표현이 사용가능하다.
「と」와「ば」형식은 전건이 성립되면 반드시, 항상 후건도 성립된다라는 필연성, 논리성이 강한 반면에, 「たら」형식은 개별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と」와「ば」형식만큼은 필연성, 논리성이 적은 편이다.

3－4 「と」「たら」

「と」와「たら」를 가정조건과 확정조건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179) 冬になると、雪が降る。
(180) 雨が降ったら、家に帰ろう。

두 예문은 모두 미성립의 사태가 현실의 경우를 想定하여 가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179) 은 전건이 성립되면 그에 대한 결과로서 후건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고 하는 자연적인 귀결을 나타내고 예문 (180) 은 전건이 성립했을 때 화자의 의지에 의한 후건의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と」형식은 전건 사항의 가정 아래 자연적・당연한 결과를 후건에 서술하고, 동시적・계기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たら」는 일회적, 개별적, 우연적인 사태를 표현한다.
「と」는 전건과 후건 사이의 자연적・필연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객관적인

서술을 나타내기 때문에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지 않는다. 반면에「たら」는 일회적, 개별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と」형식의 습관적, 반복적인 사실에는 쓰기 어렵다. 「たら」는 다른 형식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으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과 현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반사실가정법 표현이 있다.
鈴木忍는 확정조건에서의「と」「たら」가 발견의 계기나 시간적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181) ドアを開けると父が倒れていた。
(182) 駅に着いたら友達はもう迎えに来ていた。
(183) 教えられた道を5分ほど歩くと、駅があった。

위의 예문은 발견의 계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전건의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과거 완료의 시제가 쓰여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전건「開けると」「着いたら」「歩くと」가 후건에 과거 완료의 시제 「~ていた」「~あった」가 쓰임으로서 먼저 전건이 일어난 다음에 후건이 일어난다 라는 시간적 상황을 나타낸 표현으로 전・후건은 우연성을 나타낸다.
「と」형식은 두 사태의 동작이 결합해서 동시, 연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84) 部屋に入ると、コートを脱いだ。
(185) ドアを開けると、部屋に入った。
(186) 煙草をくわえると、雑誌をめくった。

예문은 전건과 후건의 동작, 작용이 결합해서 동작의 연속성, 동시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3－5 「ば」「なら」

CHOSUN UNIVERSITY 1946

「ば」는 전건의 미성립의 사태를 가정한 조건 하에 후건이 일어나나는 경우로 화자의 의견, 입장 등을 나타내는 용법을 가지는 반면, 「たら」는 화자의 의지가 개입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187) 都合がよければ、私の家に来なさい。
(188) あなたが知っているなら、きっと先生も知っているでしょう。

예문 (187) 은 전건「都合がよければ」의 미성립 사태를 가정한 조건 하에 일어나는 후건「私の家に来なさい」에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なら」는 후건의 상황이 전건의 상황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예문 (188) 의「なら」가 쓰여, 후건「きっと先生も知っているでしょう」의 상황이 전건「あなたが知っているなら」보다 앞서고 있음을 표현하는 문이다.

3－6 「たら」「なら」

「たら」는 과거의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た」인데 반하여, 「なら」는 단정의 의미를 지니는 조동사「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과거완료」와「단정」를 나타내 전건과 후건 사태간의 시간적 순서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89) a. この小説を読んだら、貸してあげます。
b. この小説を読むなら、貸してあげます。

위의 예문 (a)의 경우는「먼저 소설책을 읽고 나서 후에 책을 빌려 주겠다」고 의미로 먼저 소설책을 읽고 그 후에 책을 빌려주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적 순서로는 전건이 먼저 성립하고, 후건이 나중에 성립한다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b)의「なら」형식의 경우는 아직 책을 읽어보지

CHOSUN UNIVERSITY 1946

않은 상태지만, 「당신이 이 책을 읽으려는 의사가 있다면 먼저 책을 빌려 주겠으니 읽어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냄으로서 시간적 순서에 후건이 전건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0) a. 国に帰ったら連絡してください。
b. 国に帰るなら連絡ください。

예문(190) (a)의 「たら」가 쓰인 문장에서는 전건 「国に帰る」가 후건 「連絡する」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b)의 「なら」는 시간적 순서로는 후건 「連絡する」가 전건 「国に帰る」보다 먼저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하고 있다. 즉, 「たら」는 전·후건의 시간관계가 순차적인데 「なら」는 전·후건의 시간관계가 반대이다.

(191) a. 雪が降ったら、やめるだろう。
b. 雪が降るなら、やめるだろう。

「たら」 형식의 (a) 의 예문은 눈이 내린다는 사태의 현실을 가정하고 그 가정 사태가 성립된 후 실제로 눈이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만둘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반면, 「なら」 형식의 (b) 의 예문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 사실자체보다 그것의 판단이 성립되는 후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2) a.イタリアに行ったら、イタリア語を習いなさい。
b.イタリアに行くなら、イタリア語を習いなさい。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어를 배우세요」라는 의미로 「たら」가 쓰인 경우는 시간상으로 전건 「イタリアに行く」이 먼저 성립된 다음 후건 「イタリア語を習う」를 배우라는 의미인 반면에 「なら」가 쓰인 경우를 보면 「이탈리아에 가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 배운다」는 의미로 후건 「イタリア語を習う」가 전건 「イタリアに行く」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CHOSUN UNIVERSITY 1946

문이다.

「たら」「なら」형식를 다시 정리해 보자.

「たら」는 전건이 후건보다 먼저 성립하는 시간적 순서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에「なら」는 시간적 순서로 볼 때 후건이 전건보다 먼저 선행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たら」의 형식은 사실자체 실현여부에 입각한 가정으로 실제적이지만,「なら」의 형식은 어떤 사태의 실현이나 완료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태에 대한 판단성립에 입각한 사고적을 나타내고 있다.

CHOSUN UNIVERSITY 1946

제 3장 결론

지금까지 일본어의 대표적인 조건표현「と」「ば」「たら」「なら」네 가지 형식에 대해 살펴 보았다.

먼저,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건표현의 분류와 일본어 사전을 통한 조건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 다음 조건표현의 분류를 일반적으로 일반적 조건, 가정조건, 확정조건 세 가지로 나누어 그 분류에 따른 조건표현「と」「ば」「たら」「なら」의 의미 용법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조건표현을 다시 정리해 보면,

조건표현이란「어떤 사항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 제약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조건표현의 분류를 일반적 조건, 가정조건, 확정조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첫째, 일반적조건은 '항상조건' 이라고 일컬어지며, 전건이 성립할 때는 항상, 반드시 후건이 성립되는 자연적・필연적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로, 반복적, 습관적인 사실, 자연현상, 속담, 진리 등을 나타낸다.

둘째, 가정조건은 성립하지 않은 사태를 성립했다고 하는 가정하는 아래에 일어나는 결과를 나타낸다.

가정조건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반사실적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셋째, 확정조건은 '기정조건' 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이미 사태가 이루어진 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건이 후건에 대한 계기, 이유, 근거를 나타낸다.

조건표현의 형식「と」「ば」「たら」「なら」의 용법과 기능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다.

「と」형식은 전건이 성립하면 후건도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자연적・필연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주로 자연현상, 습관, 반복적인 사실, 진리, 속담 등에 쓰였다. 「と」는 비현실의 사태가 아닌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필연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후건에는 화자의 주관

CHOSUN UNIVERSITY 1946

을 나타내는 표현이 올 수가 없었다. 또한 다른 형식에 비해 가정하는 힘도 약했다.

「ば」형식은 시간을 초월해 성립하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표현하며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주로 자연현상, 일반적인 진리, 습관, 반복 사실. 논리법칙, 속담 등에 많이 쓰였다.

「ば」는「と」형식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고 관념적인 상상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ば」는 현실에 반대되는 사실 반사실가정에도 잘 어울렸다.

「たら」형식은 전건에서 시공간 속에 표현하는 개별적인 사태를 나타내고, 후건에서 그 실현에 의존하여 성립하는 개별적인 사태를 도입하였다.

「たら」형식은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가정이 강한 표현으로서, 다른 조건형식에 비해 문말제약이 거의 없어 후건에 화자의 의지, 희망, 명령, 금지, 권유 등의 표현이 올 수 있었다. 「たら」는 다른 형식에 비하여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시간적 순서에 관계가 있고. 또한 현실에 반하는 반사실가정 용법에도 잘 어울렸다.

「なら」형식은 어떤 상황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그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점에 서서 취하는 화자의 판단, 의지 등을 나타냈다.

「なら」는 명사에 접속되어 화제제시를 나타냈다.

「なら」는 시간적으로 후건이 전건보다 앞서는 관계를 나타내고, 「ば」「たら」형식의 문에 비해, 「なら」는 전건과 후건이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조건표현간의 비교를 통해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와 또 그 일부만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と」「ば」의 경우는 자연・필연적인 의존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 일반적진리, 속담 등의 문에서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었다.

「ば」「たら」는 가정조건을 나타내고 반사실가정에도 잘 어울렸다.

「と」「ば」는 자연・필연적인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후건에 문말에 제한이 있지만, 「たら」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후건에 문말의 제약이 적고 사용범위가 넓었다.

CHOSUN UNIVERSITY 1946

「と」「たら」는 확정조건에서의 발견의 계기나 시간적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ば」「なら」는「ば」는 전건의 미성립의 사태를 가정한 조건 하에 후건이 일어나나는 경우를 나타내고, 「たら」는 시간적 순서에 관계가 있어 후건이 전건보다 선행하고 있었다.

「たら」「なら」에서 「たら」는 전건이 후건보다 선행하는 반면에, 「なら」는 후건이 전건보다 선행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조건표현의「と」「ば」「たら」「なら」를 일반적 조건, 가정조건, 확정조건의 세 가지 분류에 의해 의미용법과 조건표현 형식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일본어 문학작품과 사설 등을 통한 용례를 수집하여 조건표현법의 연구를 해보고 싶다.

CHOSUN UNIVERSITY 1946

<参 考 文 献>

金田一春彦・池田弥三郎編, 『学研国語大辞典』, 学習研究社, 1981
森田良行, 『基礎日本語２』, 角川書店, 1982
鈴木忍, 『文法Ｉ』, 凡人社, 1980
生田目弥寿, 『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1982
新村出編, 『広辞苑』, 岩波書店, 1992
蓮沼昭子. 有田節子. 前田直子, 『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2001
이성규, 권선화, 『현대 일본어 문법연구 Ⅲ』, 시간의 물레, 2006
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態論』, 麥書房, 1975
森田良行, 『日本語学と日本語教育』, 凡人社, 1990
森田良行, 『日本語の表現』, 創林社, 1983
寺村秀夫, 『日本語の文法「下）』, 国立国語研究所, 1981
엄홍경, 「일본어의 조건표현」, 『日語学 研究의 展開』, 박이정, 2000
有田節子, 「日本語条件文研究の返還」,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2000
益岡隆志, 「日本語の条件表現について」,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2002
田中寛, 「条件表現と基本文型」, 『日本語学』, 8月号, 1994
川口さち子, 『と、ば、たら、ならによる条件表現の分析』, 早稲田大学校教育研究所
日本語教育学会, 『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大修館書店, 1990
武川武時, 『日本語文法入門』, アルク, 1989

CHOSUN UNIVERSITY 1946

< 논 문 >

李美姫「日本語条件表現에 관한 研究」, 啓明大学校 教育大学院, 1997

朴在珉「日本語条件表現에 관한 研究」, 朝鮮大学校教育大学院, 1999

鄭晳仁「日本語の条件表現に関する考察」, 京畿大学校教育大学院, 1999

李善幸「日本語条件表現에 관한 考察」, 朝鮮大学校教育大学院, 2004

呉潤珠「日本語条件表現에 관한 研究」, 関東大学校教育大学院, 2006

박윤미「일본어 조건표현의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柳恩姫「韓・日条件表現의 比較分析」, 慶熙大学校教育大学院, 2005

김연희「일본어 조건표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이유미「일본어 조건표현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CHOSUN UNIVERSITY 194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	학 번	2004803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 선 정	한문: 金 宣 廷		영문: kim Sun Jeong	
주 소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466-4				
연락처	연락처 (063) 562-0049 E-mail: cutty7979@hanmail.net				
논문제목	日本語 條件表現의 用法에 관한 硏究 (A Study on usage of the Japanese Condition Express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8월 일

저작자: 김 선 정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CHOSUN
UNIVERSITY
1946